

메누하마 해변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된 장소

메누하마 해변은 아카지마 섬에 있는 아카무라 바로 앞에 있는 해변입니다(이 이름은 오키나와 말로 ‘앞에 있는 해변’이라는 의미입니다). 1945년 3월 26일 오전 8시 4분, 미군 77 보병사단 제 305 전투여단의 제 3 상륙대대가 이곳에 상륙하여 오키나와 전투가 개전했습니다.

현대 미국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병사와 조선인 노동자가 섬의 산 쪽으로 도망쳐 들어가기 전에 상륙부대가 조우한 것은 무해하고 ‘산발적인 박격포와 기관총 포성’뿐이었습니다. 300 명의 일본인 부대와 민간인 400 명이 도망 중이었음에도 미군은 그날 오후 5시까지 섬의 3분의 2를 제압했습니다.

같은 날, 미군은 다른 게라마 제도에 잇달아 침투하여 8시 25분에 게루마, 9시에 자마미, 9시 21분에 후카지, 13시 41분에 야카비에 상륙했습니다. 나아가, 크고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카시키키에는 하루 늦은 27일 9시 11분에 침투했습니다.

풍랑을 피하기 쉬운 안전한 정박지가 많기 때문에 미군은 게라마 제도를 침략할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침략 후 게라마는 수상 비행기가 이륙하고 배가 연료를 보급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한 해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시지야마 산으로 도주

3월 23일에 해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을 때, 섬 주민들은 육지 침공이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오지로 도망쳐 들어갔고 나중에 거기에 일본 병사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이 피난 장소로 시지야마 산을 택한 이유는 험한 지형이 바다와 하늘로부터의 포격에 대해 자연적인 방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는 피난민들이 나무와 짚으로 오두막을 짓고 강 쪽에 돌로 음식을 조리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군 후방 부대는 임시 기지를 만들어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이 기간에 섬 주민과 병사들은 털머위와 뽕나무 잎,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배고픔을 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숨어서 마을로 돌아와 빈약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식료품을 훔쳤습니다.

피난 생활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미군에 투항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일주일 뒤인 8월 23일에 마지막 피난민이 항복했을 때, 시지야마 산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20가족, 80명뿐이었습니다.

Reference: U.S.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1). Chapter II:
Invasion Of The Ryukyus. Retrieved from
<https://history.army.mil/books/wwii/okinawa/chapter2.htm>